

■ 書 評

과학과 역사가 어우러진 스토리텔링
- '세계를 재다'

Die Vermessung der Welt

(Daniel Kehlmann, 독일 Rowohlt 출판사 2005)

박 여 성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독일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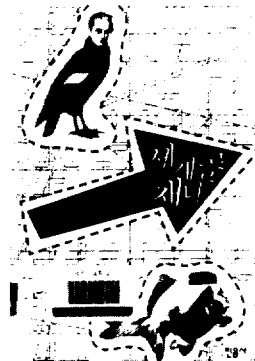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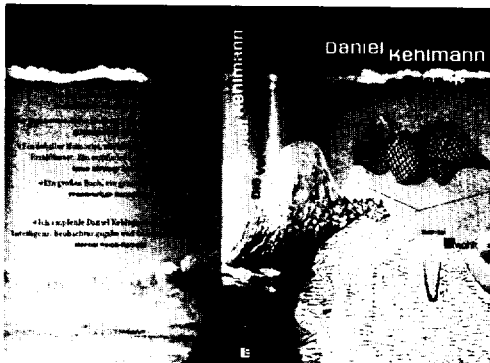
과학과 역사가 어우러진 스토리텔링 - '세계를 재다'

-Die Vermessung der Welt(Daniel Kehlmann, 독일 Rowohlt 출판사 2005)

1. 현실과 가상의 절묘한 만남
2. 텍스트 장르들 사이의 균형
3. 독서와 사유의 동선

1. 현실과 가상의 절묘한 만남

'세계를 재다'는 독일 출신의 청년작가 다니엘 켈만(Daniel Kehlmann)의 장편소설 "Die Vermessung der Welt"(2005, Rowohlt 출판사)의 우리말 완역판이다(한국어판은 독문학자 박계수 선생의 번역(민음사, 2008)으로 출간되었다). 대박과 쪽박의 양극단에서 신음하는 한국 출판계의 베스트셀러 지상주의와는 사뭇 풍토가 다른 독일에서도 100만부 이상 팔린 진기록을 세운 이 소설은 30대 중반 작가의 상상력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풍부한



역사적 과학적 지식과 예술적 상상력이 능청스럽게 비벼진 탁월한 지식소설이다.

켈만은 1975년 독일 뮌헨에서 출생했고 어린 시절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이주하여 줄곧 그곳을 터전으로 활발한 창작을 하고 있다. 독일어권의 대표적인 일간지인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그의 작품은 즐거우며 익살로 가득한 그러면서도 어렵지 않게 읽히는 지적 유희로 충만한 소설”, *Süddeutsche Zeitung*: “금년도 (2005) 독일에서 발간된 가장 익살스런 소설… 기발한 착상”, *Neue Zürcher Zeitung*: “고도로 숙련된 이야기 예술의 대가가 탄생했다”는 평론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작품성과 상업성을 두루 충족시키는 차세대의 대표적인 작가로 자리 매김 되었다.

약관의 나이에 쓴 데뷔작 *Berholms Roman*(‘베르홀름의 소설’, 1997)을 비롯하여, *Unter der Sonne*(‘태양 아래에서’, 1998), *Mahlers Zeit*(‘말리의 시대’, 1999)에 이어 2000년대에도 *Der fernste Ort*(‘아주 먼 그곳’, 2001), *Ich und Kaminski*(‘나와 카민스키’, 2003), *Wo ist Carlos Montufar?*(‘카를로스 몬투파르는 어디에 있는가?’, 2005) 등 왕성한 창작을 이어가는 켈만은 바로 이 소설 “세계를 재다”로 2005년 *Book-Seller* 지에서 선정한 ‘올해의 작가’와 ‘올해의 책’상을 단숨에 거머쥐었다. 보수적인 평단에서도 그의 작품이 우호적으로 수용되는 것은 아마 독일문학은 근엄하고 딱딱하다는 선입관을 넘어섰다는 점에 있지 않을까? 아니면 진지한 엄숙주의와의 결별을 기치로 내건 켈만 자신이 혹시 스스로를 과거의 질곡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이토록 익살맞은 창작에 도전한 것은 아닐까?(물론 그의 골계미(滑稽美)는 유럽 사교계의 지적 유희에 바탕을 두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익살로 수용될지 또한 원전의 익살이 그에 걸맞는 한국어로 번역되었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켈만은 이 작품을 구상할 때, 나뉠대로의 방식으로 세계를 파헤친 훔볼트와 가우스라는 인물을 두고 ‘하나는 저 넓은 세상을



Alexander von Humboldt



Friedrich Gauss

쏘다니며 탐사와 채록, 답사를 통한 지질, 지구, 생물, 풍습, 지리를 학문적 우주로 재구성한 반면, 다른 하나는 골방에 칩거하며 우주공간의 역학법칙과 수학에 몰두했다는 사실에 착안했다. 수학과 물리학이라는 무미건조한 체계 속에서 우주의 질서를 연구했던 고독한 수학자 프리드리히 가우스(이미 초등학생 때 수열의 원리를 깨우친 천재)와 한 순간도 고향에 정주하지 않았던 역마살의 화신이자, (언어학자이자 교육철학자 그리고 조국 프로이센의 뛰어난 외교관이었던) 형 빌헬름 폰 훔볼트(Wilhelm von Humboldt)와 더불어 독일 최고의 명문 베를린 훔볼트 대학(Humboldt Universität zu Berlin)을 설립한 지성계의 거목이었던 알렉산더 폰 훔볼트, 우리로 치자면 바다 건너 당(唐)나라 대륙의 문무(文武)를 주름잡던 최치원과 장보고의 만남이라고나 할까? 켈만의 상상력은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Il nome della rosa)이나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Davinci Code)와는 색다른 분위기를 설정하여 과학과 역사를 아우르는 그만의 독특한 스토리

텔링에 성공하고 있다.

한편, 동시대에 살았으면서도(두 사람은 7살 터울이다) 서로 단절된 채 상대방의 존재조차 몰랐던 불세출의 천재 두 명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할 묘안은 무엇이었을까...? 작가는 50대로 접어든 두 사람이 1828년 9월 프로이센(독일의 전신)의 수도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독일 자연과학자 회의에 참석하게 된다는 설정을 통해 개별적인 사실과 전체적인 허구를 정합적(整合的)인 스토리텔링의 틀 속에 넣어 그럴듯한 '흡진성'(恰眞性: *Versimilitudo*)의 세계를 구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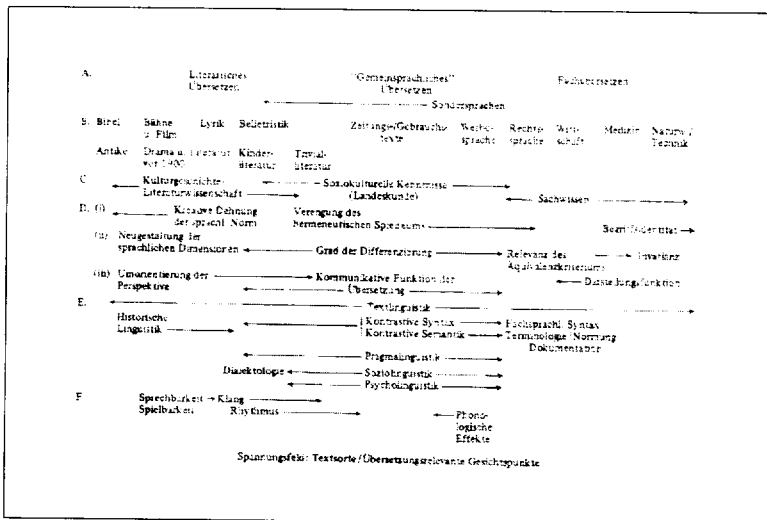
「1828년 9월, 독일이 낳은 그 위대한 수학자[프리드리히 가우스]는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독일 자연과학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수십 년 만에 고향을 떠나게 되었다. 하지만 그런 회의에 참석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었다. 몇 달을 끌며 초청을 고사했지만 알렉산더 폰 훔볼트의 집요한 부탁에 못 이겨 마음이 약해지고 말았다. 결국 그는 초청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제발 그날이 오지 않기를 바랐다」

켈만의 소설은 얼핏 'Die Vermessung der Welt'(평자의 견해로는 "세계의 측정(測定)"이 적절한 번역인 것 같다)라는 현학적인 투의 딱딱한 제목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촌철살인의 묘사로 가득하다. 분명히 실존했던 두 명의 위대한 과학자, 즉 알렉산더 폰 훔볼트와 프리드리히 가우스라는 인물의 삶(Fact),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면식도 없는 두 인물의 좌충우돌을 결합하여 팩션(Faction)으로 가공하는 문학적 문법을 유감없이 발휘한 이 작품은 스토리텔링의 성패가 어설플 문화원형을 값싸게 치장하는 상업적인 기교를 넘어서, 개별적 사건(두 천재의 삶)에서는 역사에 토대를 두되 서사 전체로서는 단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는 허구(둘 사이의 지성의 유희)를 구축하는 조합술(組合術: *ars combinationis*)에 달려있음을 보여준다. 학문적 엄정성과 지적인

익살이 펼쳐는 양수점장의 묘미를 만끽하려면 이 책이야말로
안성맞춤이다.

2. 텍스트 장르들 사이의 균형

‘세계를 재다의 또 다른 즐거움은 이 소설이 여러 텍스트들 사이의 접점에서 펼쳐는 이야기의 형식미에도 있다. 번역학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한 스펀-혼비(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교 번역학과 교수)는 기능주의자(Funktionalisten)로 불리는 일군의 번역학자들과 저술한 ‘번역학, 하나의 새로운 방향 설정’(Übersetzungswissenschaft. Eine Neuorientierung. UTB, 1986)에서, 문학장르이든 실용 텍스트이든 어떤 텍스트라도 언어의 우주 속에서 일정한 좌표에 위치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다양한 텍스트들의 형식 구조를 가늠하는 텍스트유형학의 토대를 제시한 바 있다. 이 모델에서는 A에서 F에 이르는 여섯 층위에서 거시와 미시를 오가는 텍스트의 외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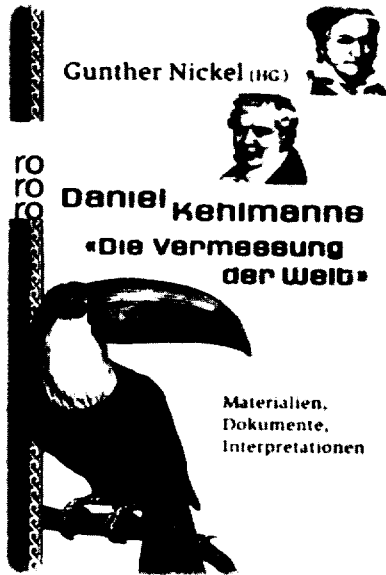


을 보여 준다:

A 층위에는 텍스트의 문학과 실용성의 스펙트럼이 설정된다. '세계를 재다'에는 한편으로 털끝만큼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자연과학(수학, 물리학, 천문학, 생물학)의 정밀한 세계와 다른 한편으로 천방지축 전 세계를 휘저으며 항해와 박물(博物) 등 돌발적인 사건으로 점철된 생활세계(Lebenswelt)가 뒤엉켜 있다. 다시 말해 지구 전체를 지리학의 체계로 재편하려는 훔볼트의 야심과 지구보다 훨씬 방대한 우주를 역설적으로 가장 미시적인 수학 방정식으로 환원하려는 가우스의 편집증 그리고 이 괴팍한 두 인물의 조우를 마련해준 프로이센의 문화정책이라는 문화사적 맥락이 조합된 셈이다. B 층위에는 예술성을 담은 성서나 고전작품에서 시작하여 희곡과 서정시, 통속문학작품, 신문과 실용 텍스트, 광고 및 법률언어, 경제, 의학, 자연과학과 공학 등 각 영역에 대표적인 장르나 텍스트유형이 제시된다. C 층위에는 텍스트를 외부에서 제어하는 인접체계, 문예학자 헤르만스(Th. Hermans)가 정의한 문화 사회 지역 사물에 대한 지식을 포괄하는 다중체계(Polysystem)의 관계망이 배치된다(D에서 F에 이르는 나머지 층위는 이 소설과 큰 연관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한다). 수학, 천문학, 물리학, 생물학, 지리학, 지질학, 해양학, 경찰제도, 교통수단, 제국주의, 교통 등... 자, 이쯤 되면 '세계를 재다'는 조잡한 주제들이 판치는 알팍한 신세대 소설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상당한 수준의 지적 훈련을 요구하는 가히 지식소설의 전형이라 할만하다.

3. 독서와 사유의 동선

'세계를 재다'는 미시적인 질서로 우주방정식을 풀려고 했던 수학자 프리드리히 가우스와 거시적인 척도로 지구를 장악하려



했던 지리학자 알렉산더 폰 훔볼트를 주제로 삼아, 마치 헤르만 헤세의 '유리알 유희'(Das Glasperlenspiel)에 서처럼 각 장을 번갈아가며 등장인물의 이야기를 전개하는 문학적 대위법(對位法: Contra-punctus)을 동원한다. 영화로도 알려진 스코트 피츠 제럴드의 단편소설 '벤저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에서는 남녀 주인공의 생로병사가 시간적으로 엇갈리는 (작곡에서 음표의

진행을 역순으로 배열하는 기법인) 전회(轉回: Inversion)를 사용했다면, 이 소설은 과학과 수학의 두 거물이 만났을 법한 절묘한 상황을 극히 이질적인 학문체계와 라이프스타일의 쌍곡선에 투영하는 개념적 공간적 대위법을 활용한다.

이런 구성에 낯선 독자들은 책의 제목만 보고는 읽기의 이정표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세계를 재다"에서는 장(章)을 번갈아 훔볼트와 가우스를 대조적으로 묘사하는 구성방식에 주목해야 한다. 이를테면 훔볼트를 묘사한 부분('바다—동굴—강—산—수도—나무')을 먼저 읽고 이어서 가우스의 이야기('여행—선생—수—별들—정원—아버지—나무')를 읽은 다음에, 두 부분을 베를린 학술회의에서 조우하는 우스꽝스런 장면('아들—에테르—유령—초원지대')에서 함께 묶는다면 켈만이 의도적으로 뒤섞어놓은 이야기의 구조를 독자 나름대로 다시 정돈하는 재미도 느낄 수 있다.

이 소설을 읽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각 분야의 담론체

계들로 분열되어 다른 영역의 담론과는 벽을 쌓은 이른바 '전문가 바보들'(Fach-Idioten)끼리도 머지않아 서로 소통할 수 있겠다는 일말의 희망을 가지게 된 점이다. 그때 떠오른 단상을 정리해 보면서 서평을 맺고자 한다.

첫째, 독일 풍의 체계론적 사고와 자유분방한 프랑스 식 상상력에 낮은 독자는 제각기 유연한 독서전략을 전개할 수 있다. 전자가 인지과학(Cognitive Science)에서 말하는 top-down(전체에서 부분으로)과 bottom-up(부분에서 전체로)의 궤도를 따라 연역과 귀납을 오르내리는 방식이라면, 후자는 다양한 절점들(Nodes)에 연결된 이른바 하이퍼텍스트(Hyper-text)를 드나드는 zoom in & out 방식의 읽기이다. 과학의 체계론은 정밀하지만 따분하고, 살아있는 생각의 리즘(rhizome)은 다소 혼란스럽지만 창의성을 선사한다. 독서하는 몸을 중심으로 질서와 무질서를 왕래하는 두 맥박을 공유하는 것이야말로 읽기의 진수가 아니겠는가(이런 절차는 알고 보면 텍스트 이해의 지평(Horizont)을 재구성하려는 해석학(Hermeneutik)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둘째, "세계를 재다"라는 텍스트가 포함하는 주제어의 목록, 즉 기호학적 동위관계(同位關係: semiotische Isotopie)를 정돈해 보라. 예컨대 과학의 축에서는 갈릴레오와 케플러, 코페르니쿠스에 이르는 천문학의 세계, 가우스와 오일러의 수학 공식, 역사의 축에서는 신세계(호주와 아메리카)를 질주한 제임스 쿡(James Cook)과 콜럼버스(Columbus), 브라질 원시림과 오리노코 강, 몬테주마(Montezuma) 추장에 이르는 식민 제국주의 시대에 단골로 등장하는 주제들 또한 지나칠 수 없다.

끝으로, 우리의 지성사적 맥락이라면 과연 어떤 그럴싸한 이야기가 성립했을까... 상상하면서 읽어 보라(이를테면 원작이나 역사적 사건에서 영감을 얻어 집필된 작품들로 예코의 '장미의 이름'—이인화의 '영원한 제국', 훈민정음 창제—'뿌리 깊은 나무', 연산군 일기와 보들레르의 시집, 라블레의 희극—'왕의 남자' 등

을 떠올려 보라).

'세계를 재다'는 서구 지성사의 준열한 에피스테메(epistémé)와 역사적 객관을 익살스런 허구(Fiction)로 재탄생시키는데 성공한 빈틈없는 고뇌의 결과이다. 그러니 만큼 게르만의 신세대 구슬라(Gusla: 이야기꾼) 다니엘 켈만의 후속작을 학수고대하는 것은 전도양양하게 떠오르는 청년 문호에 대한 마땅한 예우가 아니겠는가!